

圖書館藏書의 廢棄基準에 關한 考察

李 恩 徹*

〈目 次〉

- | | |
|---------------------|-----------------------|
| I. 序 論 | 1. 主觀的인 基準 |
| II. 藏書廢棄에 대한 見解의 變遷 | 2. 客觀的인 基準 |
| 1. 消極的인 見解 | IV. 書架待機期間에 의한 藏書廢棄方法 |
| 2. 積極的인 見解 | V. 結 論 |
| III. 藏書廢棄基準과 그 問題點 | |

I. 序 論

「버틀러」(Pierce Butler)는 圖書館은 人類의 記憶을 保存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며, 圖書館은 圖書를 통해 人類의 記憶을 人間意識속에 傳達시키는 하나의 社會的 裝置(Social apparatus)라고 하였다.⁽¹⁾ 그러므로 圖書館은 人類의 文化遺産을 후손들에게 傳達하는 媒介體(Communication Media)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選擇·蒐集하고 이를 組織·保存하여 利用者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특히 圖書館의 發生初期에 強調되었던 “資料의 保存”이라는 觀點에서의 圖書館의 概念이나 機能에 있어서 많은 變化를 가져왔고, 또한 지금도 變化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C 후반에 와서는 이와같은 變化가 격심하여 이제는 圖書館의 基本的 概念이나 그 社會的인 機能, 그리고 圖書館을 運營하는 司書의 役割이 “資料의 保存”이라는 觀點 보

* 同德女子大學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1) Butler, Pierce.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p.9.

다는 “資料의 效率的인 利用”이라는 관점으로 커다란 變化를 强要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을 變化시키는 여러가지 要因중에서 우리가 가장 注目하여야 할 절가운데 하나로서 情報量의 急増을 들 수 있다. 1963년에 「드 솔라 프라이스」(Derek de Solla Price)는 情報量의 급증추세가 15년을 단위로 2倍로 증가한다고 했으며⁽²⁾, 그후 10여년이 지난 1974년에 「들라베나이」(Emile Delavenay)는 1950년부터 1970년까지의 20年동안 出版量이 3倍로 증가했다고 하였다.⁽³⁾ 이 두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出版量의 增加速度는 앞으로 더욱 加速化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圖書館은 圖書館 本來의 使命을 完遂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直面하고 있다. 특히 情報의 急増으로 인한 問題點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慮하여야 할 것이다. 圖書館은 계속해서 增加하는 資料의 保存을 위한 書庫空間의 부족현상, 새로운 자료의 購入과 관리를 위한 豫算問題, 자료의 增加로 인한 檢索效率의 低下, 利用되지않는 도서의 累積으로 인한 藏書의 質的低下등의 어려운 問題點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

가. 現在 要求되지않는 자료를 圖書館內的 別途의 場所에 所藏하는 方案

나. 一群의 圖書館이 서로 協力하여 蒐集·保存業務를 遂行하는 方案

다. 圖書館藏書를 「마이크로」化하는 方案등이 오랜동안 研究·檢討되어 왔으나 만족할 만한 解決이 되지 못했으며⁽⁵⁾⁽⁶⁾⁽⁷⁾ 藏書의 적절한 廢棄가 가장

(2) Price, Derek de Solla. *Little Science, Big Scie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3) Delavenay, Emile. *For Books*. Paris. UNESCO, 1974. p.14.

(4) 이은철, “도서관장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비블리아 제 4집, 1980. pp. 103~109.

(5) Cooper, Marianne. “Criteria for Weeding of Collec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12, No.3, Summer 1968. pp.340~341.

(6) Ellsworth, Raloh E. *Planning Manual for Academic Library Building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3. pp.31~33.

(7) Totten, Herman L.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s for Storage: A State of the Art,” *Library Trends* Vol.19, No.3, January 1971. pp.341~342.

바람직한 解決方案의 하나로 提示되었다.^{(8) (9)}

「봉크」와 「메그릴」(Wallace J. Bonk and Rose Mary Magrill)은 藏書의 廢棄는 圖書의 選擇과 미찬가지로 圖書館業務의 主要 一部分이며, 廢棄는 規則的이고, 계속적이며, 一貫性있는 업무이어야 한다고 했으며⁽¹⁰⁾, 「셰라」(Jesse H. Shera)는 司書의 주요한 업무가운데 圖書를 蒐集하는 것보다는 除去하는 업무(Book Elimination)가 더 중요시 될 시대가 오고 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¹¹⁾ 또한 「케츠」(William A. Katz)는 圖書의 選擇과 廢棄는 쌍생아와 같이 항상 상호관련되어 있으며, 圖書의 廢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圖書館藏書는 쓸데없는 자료로 인해 질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¹²⁾

「켄트」(Allen Kent)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있다. 그들은 1968년 10월부터 1975년사이의 7년 3개월동안에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서관(University of Pittsburgh Library)에 수입된 도서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도서들의 이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관찰하여, 1969년에 수입된 도서 36,869권중 39.8%인 14,673권이 6년동안 한번도 貸出된 적이 없었으며 「피츠버그」대학교서관 全體藏書의 48.37%가 7년동안에 한번도 대출된 적이 없었으며, 도서가 시간이 經過함에 따라 그 利用率이 減少되어 1969년에 수서된 36,869권의 每年 利用冊數가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年度	每年처음 대출된 도서수
1969	9,708권
1970	6,424권
1971	2,449권
1972	1,452권

(8) Metcalf, Keyes D. *Planning Academic and Research Library Buildings*. New York, McGraw-Hill, 1965. p. 3.

(9) McGraw, Howard F. "Policies and Practices in Discarding," *Library Trends* Vol. 4. No. 3, January 1956. p. 277.

(10) Bonk, Wallace John and Magrill, Rose Mary.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5th ed.,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9. p. 315.

(11) Shera, Jesse H. "The Upside Down Library," *Utah Libraries*. Spring 1978. p. 11.

(12) Kato, William A. *Collection Development: The Selection of Materials for Libraries*.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78. p. 73.

4 도서관학논집

1973	915권
1974	644권
1975	580권
計 22,172권	

결국 6년 동안에 60.2%만이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圖書選擇에 있어서 도서관에 수입된 圖書가 未來에 利用될 것이라는 確實한 근거를 가지고 수서 결정을 내리게 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方法이 없다고 하면서 藏書廢棄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¹³⁾

만약 도서관들이 도서관자료를 入手하는데 必要한 예산이 무한정 책정되어 있고, 매년 全世界에서 出版되어지는 약 40~50만종의 도서를 모두 찾아내어 購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고, 그 자료들을 整理할 수 있는 職員들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자료들을 所藏할 空間을 保有하고 있으며, 영원히 이와같은 일을 處理해낼 수 있는 能力이 있다면, 분명히 도서관장서의 廢棄에 대한 問題는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狀況에 완벽하게 對處할 수 있는 도서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든 도서관은, 비록 도서관자료의 保全을 가장 중요한 目標로 삼고있는 도서관일지라도 도서관장서의 폐기문제에 直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廢棄하여야 할 圖書를 選定하게 되는 지금까지 提示되어진 여러가지 廢棄基準과 그것들의 問題點을 考察하여 보고, 廢棄하여야 할 圖書를 選定하는 바람직한 方法을 살펴보고자 한다.

本稿에서 使用하고있는 廢棄라는 用語와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있는 除籍, 淘汰라는 용어는 英語와 Weeding, Discard, Withdrawal, Relegation, Pruning 등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用語의 定義가 明確하게 區分되어 사용되어지지 않는 실경이다. A. L. A Glossary of Library Terms⁽¹⁴⁾나 「해로드」(L. M. Harrod)의 The Librarians' Glossary & Ref-

(13) Allen Kent and Others, *Use of Library Material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tudy*. New York, Dekker, 1979.

(1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 L. 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 L. A., 1943.

erence Book⁽¹⁵⁾을 통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되어지지 않으나 「맥고」(Howard F. McGaw⁽¹⁶⁾)에 의하면 Discard는 도서관에서 記錄과 資料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Weeding과 Withdrawal은 記錄과 資料를 없애거나, 記錄은 保存하고 資料는 一般藏書로부터 보존서고나 밀집서고등으로 옮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本稿에서 사용하는 廢棄라는 용어는 Weeding의 譯語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나, 筆者의 見解는 後者의 것에 기울어져 있음을 밝힌다.

II. 藏書廢棄에 대한 見解의 變遷

장서폐기에 대한 여러가지의 勸告(Recommendation)나 見解가 提示되어 왔지만 그것들이 모두 一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폐기에 대한 否定的인 견해도 있으며 폐기를 施行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範圍內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積極的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폐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目錄도 또한 多樣한 양상을 띄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社會的, 時代的인 變遷에 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저자들의 個人的인 態度나 견해들이 反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서폐기에 대한 勸告나 견해들은 계속해서 增加하는 藏書로 인한 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도서관 관리자의 立場에서는 實質的인 문제도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근거를 바탕으로 提示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되어졌던 여러가지 藏書廢棄에 대한 견해를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消極的인 見解

첫째로 도서관의 모든 장서는 절대적으로 完全한 상태로 保存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것은 장서의 폐기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로서 도서관의 모든

(15) Harrod, Leonard Montague. comp., *The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4th revised ed. London, Andre Deutsch, 1977.

(16) McGaw, op. cit., p. 270.

資料는 記錄되어진 人類文化의 遺産이므로 完전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이 遺産을 除去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라고 規定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表明하고 있는 代表的인 文獻으로 「노펠드」(John Newfeld)의 “S-O-B Save Our Books”를 들 수 있다. 그는 장서를 폐기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SOB”라는 구원을 요청하는 信號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¹⁷⁾ 圖書館 發生初期의 도서관의 設立目的이 資料의 保存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慎重하게 받아 들일 수도 있으나 序論에서 언급한 것 처럼 영원히 모든 圖書館을 保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의 견해로는 장서의 폐기를 施行해도 좋으나 시행할 때는 어떤 막연한 基準에 의해서가 아니라 專門家의 慎重하고 正確한 判斷에 의해서만 施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經驗있고, 熟練된 司書나 各 主題分野의 專門家에 의해서 또는 各級 教育機關에 所屬되어있는 도서관은 敎師, 敎授, 研究者들에 의해서 充分히 評價되어진 후에 폐기대상도서가 決定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우리 나라의 圖書館들 중 특히 大學圖書館들이 이러한 견해를 많이 갖고 있다. 筆者가 調査한 우리 나라 各 大學도서관의 規定에 의하면 장서의 폐기에 관한 條項이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關係條項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敎授陣들로 構成되어져 있는 圖書館運營委員會에서 廢棄資料의 選定에 관한 事項을 決定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담당자사에 의해 選定된 廢棄對象資料들을 圖書館運營委員會에서 各 委員들이 主題專門家의 立場에서 最終決定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代表的인 사람은 「베드솔」(Danny T. Bedsole)로서 各 主題分野의 特定한 자료를 폐기시키는데는 올바른 전문적인 判斷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셋째로는 계속해서 增加하는 藏書로 인해 도서관 建物을 신축해야만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意圖로, 장서를 폐기하여 예정되어있는 書庫空間을 적

(17) Neuleld, John. "S-O-B Save Our Books," RQ VI, Fall 1966. pp.25~23.

(18) Bedsole, Danny T. "Formulating a Weeding Policy for Books in a Special Library," *Special Libraries* XLIX, May-June 1958. p.207.

결히 유지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견해이다. 「실버」(Edward A. Silver)는 리츨들이 현재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새로운 도서의 수집으로 인해 도서관의 豫備書庫空間이急速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指摘하면서 도서관에 所藏할 적절한 藏書數만을 계속에서 유지하는 方法을 模索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와 같은 도서관의 문제점을 解決하는 方案으로 장서의 폐기를 提案하였다.⁽¹⁹⁾ 물론 이러한 提案도 다른 藏書廢棄에 관한 提案과 마찬가지로 批評을 면할 수는 없다. 특히 人間의 知識量이 增加함에 따라 圖書館의 藏書數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서관 장서수를 일정한 量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2. 積極的인 見解

첫째는 장서를 폐기하는 것이 圖書館利用을 增進시킨다는 장서폐기에 대한 肯定的이고 積極的인 見解이다. 「맥고」는 장서를 適切히 폐기시키므로써 장서의 効用性和 活力性이 增加되어 藏書의 活潑한 利用과 함께 장서의 質의 水準을 높여준다고 하였다.⁽²⁰⁾ 充分히 利用되지않는 도서관의 藏書는 資源을 낭비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것이므로 도서관은 利用者 中心으로 活潑하게, 그리고 效率的으로 利用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도서관의 性格을 잘 反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견해는 여러 도서관기준들에도^{(21) (22) (23)} 잘 反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폴슨」(Ruth E. Polson)⁽²⁴⁾의 報告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장서의 폐기 以後 藏書의 量

(19) Silver, Edward A. "A Quantitative Appraisal of the M.I.T. Science Library Magazine with an Application to the Problem of Limited Shelf Space," M.I.T., 1962. p.2.

(20) McGraw, op. cit., p.277.

(21) A.L.A., Public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n Standards for Work with Young Adults in Public Libraries. *Young Adults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y*. Chicago, A.L.A., 1960. p.27.

(22) A.L.A., Public Library Association, Subcommittee on Standards for Children's Services. *Standard for Children's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Chicago, A.L.A., 1964. p.22.

(23) A.L.A., Public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Committee and Subcommittees. *Minimum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System*, 1966. Chicago, A.L.A., 1967. pp.39~40.

(24) Polson, Ruth E. "When Your Library Join a System, What Can You Expect?," *Illinois Libraries* XLIX January 1967. pp.26~38.

은 1/3以上으로 줄어들었으나, 藏書의 貸出은 오히려 장서폐기 이전보다 81%나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둘째의 견해로는 장서의 利用速度가 빨라지고, 藏書檢索의 正確性과 效率性이 增加되도록 도서관 장서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利用者가 필요로 하는 資料를 많은 장서속에서 檢索하는 것 보다 適正量의, 그리고 適切하게 整理되어진 장서속에서 利用者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利用하고 檢索하는 것이 時間과 努力이 덜 소모되는, 效率적인 것이다. 特殊圖書館에 속하는 新聞社 圖書室의 경우 적은 規模의 適切한 장서는 자료를 檢索하는데 所要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記事의 마감시간을 다루게 되는 言論機關의 도서실인 경우 불필요한 자료가 늘어남으로 인해 合理的인 利用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研究結果가⁽²⁵⁾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이다.

셋째로 미래에 가장 덜 이용될 장서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실버」의 일정규모의 장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미리 豫定된 一定水準의 將來利用率을 充足시키게 될 장서만을 유지시키기 위한 試圖이다. 예를 들어 利用者의 現在 要求를 97%정도 充足시켜주는 圖書群을 基本藏書(Core Collection)라고 한다면 基本藏書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는 폐기시켜 理想的인 規模의 장서만으로 利用者에게 불편을 주지않고 도서관을 運營할 수 있다는 것이다. 最近의 장서폐기에 관한 大部分의 진지한 研究들은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充分히 다루어질 것이다.

Ⅲ. 藏書廢棄基準과 그 問題點

지금까지 圖書館關係 文獻에서 장서폐기의 必要性和 重要性이 수 없이⁽²⁶⁾

(25) Slose, Stanley J. "An Approach to Weeding Criteria for Newspaper Libraries," *American Documentation* XIX, April 1968. pp.168~172.

(26) Slose, Stanley J. *Weeding Library Collections*-II. 2nd ed.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2. p.61: 圖書館藏書의 廢棄에 관한 主題를 다룬 文獻이 거의 1,000件에 달한다고 했다.

強調되어 왔으나, 도서관 實務的인 面에서는 거의 施行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장서 체계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事實이 報告된 바 있다.⁽²⁷⁾ 도서관에서 장서 체계의 必要性和 重要性을 충분히 認識하면서도 왜 그것이 잘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究明하지 않고 지나쳐 버릴 수는 없다. 일반적인 觀點에서 이러한 原因들에 대해 究明된 바로는 藏書數에 대한 強한 執着, 廢棄基準說定의 어려움, 廢棄圖書에 대한 行政的 處理의 어려움, 業務의 過重, 圖書에 대한 畏敬心 등으로 指摘되고 있다.⁽²⁸⁾ 그러나 以上과 같이 指摘된 原因들이 충분한 說得力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批判을 면할 수가 없음이 또한 밝혀진 바 있다.⁽²⁹⁾

1725년에 「홀리스」(Thomas Hollis)가 「런던」에서 「하아바드」대학당국에 편지하기를 “新刊圖書들로 인해 더 많은 書庫空間이 필요하다면 덜 利用되는 자료들을 보다 먼곳으로 옮겨놓는 것이 수월한 解決策이다”⁽³⁰⁾라고 일찌기 指摘한 것처럼 어떠한 경우이든 폐기대상 자료를 選定하는데 가장 基本的인 基準이 되는 것은 利用이 되지 않는 자료 즉 앞으로도 利用되지 않을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는 자료를 폐기대상자료로 決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 圖書館에 所藏하고 있는 장서의 將來利用度를 豫測할 수 있는 變數가 어떤 것인가에 兪점이 모여지게 된다. 그것에 의해서 도서관의 장서가 폐기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

도서관 장서의 將來利用度를 豫測할 수 있는 變數로서 지금까지 主觀的인 基準인 主題專門家에 의한 判斷과, 言語, 圖書의 壽命(Age), 過去의 利用記錄, 그리고 도서의 수명과 과거의 이용기록등을 複合的으로 적용하는 등의 客觀的인 基準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와같은 現行의 폐기기준들을 考察해 보고 거기에 수반되어져 있는 問題點을 把握하여 좀더 나은 代案을 模索하여

(27) *Ibid.*, p.19.

(28) Bonk and Magrill, *op. cit.*, p.314.

(29) 이은철, *op. cit.*, pp.107-109.

(30) Potter, Alfred Claghorn. *The Library of Harvard University: Descriptive and Historical Notes*. 4th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1934. p.14 (Stueart, Robert D. and Miller, George B. comp.,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A Treatise (Part A)*. Greenwich, Conn., JAI Press, 1980. p.161에서 再引用)

야 할 것이다.

1. 主觀的인 基準：主題專門家の 判斷에 의한 方法

主觀的인 判斷에 의한 폐기방법은 대체로 主觀的인 判斷을 내리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規則, 規定등을 결정해 놓고 그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장서폐기 담당자가 判斷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方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指摘할 수 있다. 만약 經驗이 풍부한 두 사람의 장서폐기 담당자가 同一한 장서를 對象으로 하여 폐기대상 도서를 各各 選定하였다고 假定해 본다면, 과연 두 사람이 選定한 폐기대상 도서가 어느 정도 一致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장서폐기의 문제점을 쉽게 認識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圖書館協會의 基準分科委員會에서 作成, 提示한 「한국도서관기준」에 의하면⁽³¹⁾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그리고 特殊圖書館基準들이 거의 共通으로 장서폐기의 必要性을 認識하여, 장서의 最新性を 유지하고, 生動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不用資料, 利用度가 극히 낮은 資料, 敎育, 研究 및 情報資料로서 價値가 喪失된 자료, 不必要하게 된 자료등을 年平均 0.3%內에서 폐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장서폐기가 主觀的인 判斷에 의한 폐기의 例로 들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폐기담당자서나 주제전문가에 의해 폐기대상도서가 결정되어져야 하는데, 과연 適切한 장서의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장서의 폐기는 일반적으로 專門司書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다른 業務를 맡고 있는 전문사서의 업무가 過重되어 結局은 장서폐기에 대한 計劃마저도 수립되지 못한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것이다.

(31)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 위원회 편.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明確하지도 않은 基準을 適用하여 폐기대상도서에 대해 훌륭하고 正確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폐기담당사서와 주제전문가의 能力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은 남아있다. 장서의 폐기는 圖書의 選擇業務와 마찬가지로 도서에 관한 全般的인 知識과 利用對象者들에 대한 폭넓은 知識이 반드시 要求되어지는 것이다. 도서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利用者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의 存在理由중의 하나가 利用者에 대한 奉仕이므로 利用對象者들에 대한 포괄적인 知識은 必須的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出版量의 增加가 자료에 관한 전반적인 知識을 所有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全世界의으로 每年 40~50萬種의 도서가 새로이 出發되어 세계에는 4천5백~5천만종의 도서가 出版되어진 것으로 推算되며, 그외에도 年間 數十萬種의 政府文書와 1백여만종의 刊行物과 수집만종의 非圖書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狀況下에서 과연 도서에 관한 전반적인 知識이 필수적으로 要求되어지는 폐기담당사서나 주제전문가가 얼마 만큼이나 적절하게 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도서를 選擇·入手할 때의 判斷過程보다 폐기대상도서를 선정할 때의 판단 과정에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폐기되어진 도서가 後日에 利用者들에 의해 상당히 要求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³³⁾ 이와같은 점도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장서폐기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서의 選定과 廢棄過程에서 지나칠 수 없는 점으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利用對象者들에 대한 폭넓은 知識이 絶對的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利用對象者들에 대해 폭넓은 지식은 가져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폭넓은 知識을 통해 그들의 要求를 充分히 充足시켜줄 수 있는 圖書를 選擇함과 同時에 그들의 要求에 적절치 않은 도서를 적절히 폐기시켜야 한다는 두가지 관

(32) Slote, *Weeding Library Collections-II*, pp.35~36.

(33) Bonk and Magrill, *op. cit.*, pp.314~315.

결에서 생각할 수 있다. 各種 도서관의 利用者들은 圖書館의 目的, 種類, 特性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各 圖書館들은 利用對象者들의 特性을 最大限 把握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現在의 利用者는 물론 앞으로 利用者群속에 포함될 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잠재이용자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現在의 利用者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다는 점도 쉬운 문제가 아닐진데 잠재이용자에 대한 폭넓은 지식까지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서관의 전체 이용대상자들 중에서 소수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용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要因중의 하나이다. 「베렐선」(Bernard Berelson)에 의하면 미국 공공도서관의 成人 이용대상자의 10%만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³⁴⁾ 「브랜스콤」(Harvie Branscomb)에 의하면 대학생의 多數가 자기 대학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대학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거의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까지 했다.⁽³⁵⁾

이상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장서폐기의 여러가지 문제점은 폐기를 담당하고 있는 司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어 폐기를 기피하거나, 着手하였다 고 하더라도 中途에 포기하게 하는 要因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客觀的인 基準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장서를 폐기하는 것의 문제점은 이미 詳述되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서폐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막연한 固定觀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장서폐기에 대해 積極的으로 對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 考慮되어질 수 있는 것중의 하나로 客觀的인 廢棄基準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서폐기의 客觀的인 基準으로 삼고 있는 代表的인 것으로서 「뮤엘러」(Elizabeth Mue-

(34) Berelson, Bernard. *The Library's Publ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p.10.

(35) Branscomb, Harvie. *Teaching with Books, A Study of College Libraries*. Chicago,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A. L. A., 1940. p.39.

ller)⁽³⁶⁾, 「리스트」(Wiston C. Lister)⁽³⁷⁾, 「쿠퍼」⁽³⁸⁾, 「뤼슬러」와 「사이먼」(Herman H. Fussler and Julian L. Simon)⁽³⁹⁾, 「슬로우트」⁽⁴⁰⁾ 등의 研究에서 圖書의 壽命(age)—圖書의 出版年, 版權登錄年, 圖書의 受入年(Acquisiton Date)—과 圖書의 過去利用記錄을 들고 있다.

(1) 圖書의 壽命에 의한 基準

도서의 수명에 의해서 폐기대상도서를 결정하기를 勸告하는 것으로서 먼저 各種 圖書館基準들을 들 수 있다. 미국 도서관협회 的 公共圖書館部會는 「公共圖書館奉仕의 最低基準과 評價指針」에서 “...공공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을 形成하고 있는 現在 利用資料는 10年 以內에 별 價値가 없고 쓸모없는 자료가 된다”⁽⁴¹⁾라고하여 10년이 지난 자료는 폐기대상도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위의 예는 주로 單行本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定期刊行物에 대해 언급한 例로는 美國圖書館協會의 司書教師協議會에서 提示한 「學校圖書館運營基準」에서 “정기간행물의 지난호들은 적어도 5년동안의 것은 보존되어야 한다”⁽⁴²⁾고 하였다. 물론 이와같은 점들이 資料의 價値가 언제쯤 喪失되어 진다는 것과 最少限 얼마동안 保存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10年 以後에는 또는 5年이 經過한 자료는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장서폐기문제에 관해 다루고 있는 文獻에는 도서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폐기대상도서를 決定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타나 있다. 모든 主題分

(36) Mueller, Elizabeth. "Are New Books Read More than Old Ones?," *Literary Quarterly* Vol. 35, July 1965. pp.166~172.

(37) Lister, Winston C. *Least Cost Division Rules for the Selection of Library Material for Compact Stor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67.

(38) Cooper, *op. cit.*, pp.339~351.

(39) Fussler, Herman H. and Simon, Julian L. *Patterns in the Use of Books in Large Research Libra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40) Slote, O. *Weeding Library Collections*.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75.

(41) A. L. A., Public Library Division, Coordinating Committee on Revision of Public Library Standards. *Public Library Service, A Guide to Evaluation with Minimum Standards*. Chicago, ALA, 1956. pp.34~35.

(42) A. L. A.,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 Chicago, A. L. A., 1960. p.79.

野의 圖書を 대상으로 하여 基準이 提示되기도 하고, 또는 各 主題分野別로 서로 다르게 기준이 제시되어지기도 한다. 「슬로우트」가 여러 文獻속에 나타나 있는 도서의 수명에 의한 폐기기준을 綜合하여 提示한 것을 보면

全主題分野를 대상으로 한 기준

1. 30년 정도 所藏되었던 도서,
2. 20여년이 지난 도서,
3. 標準圖書目錄에 없는 10년이 지난 도서,
4. 10년이 지난 短期間동안의 「베스트셀러」소설,

各 主題와 形式에 따른 기준

1. 10년이 지난 보통의 모든 교재류,
2. 5~10년이 지난 의학, 발명, 「라디오」, 「텔레비전」, 원예에 관한 도서
3. 10년이 지난 여행 관계도서,
4. 10년 以上이 지난 사범대학의 경제, 과학, 생활미술 관계도서,
5. 10년이 지난 단기간의 「베스트 셀러」소설,
6. 최소한 매 10년마다의 백과사전,
7. 년감, 년보, 편람은 최신판을 보유하되 '최소한 5~10년 동안의 지난 호도 보관,
8. 辭典과 인명정보원은 절대로 폐기해서는 안된다,
9. 名鑑은 최신판을 보유하되, 5~10년 동안의 지난호도 보존,
10. 5~10년이 지난 값싼 지리정보원,
11. 10~15년이 지난 사회과학, 시사자료,

등으로 나타나 있다. ⁽⁴³⁾

以上과 같은 도서의 수명을 도서의 將來利用度를 豫測할 수 있는 變數로 결정하여 이 變數에 의하여 폐기대상도서를 選定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業務를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폐기의 기준으

(43) Slote, *Weeding Library Collections-II*. pp.36~42.

로 도서의 수명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先行되어야 할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그것은 도서의 수명을 결정하게 될 여러가지 年度(Date)중에서 어느 것을 基準年度로 결정하느냐인 것이다. 도서의 수명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몇가지의 年度가 있다.

첫째로 出版年(Imprint Dat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同一한 版(Edation)內에서 어떤 刷年度(Printing Date)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各版의 第1刷을 基準으로 할 것인지 또는 最終刷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훌륭한 著述은 數회에 걸쳐서 再刷되는 경우가 常例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版이 달라질 경우에는 著者와 書名이 同一할지라도 別個의 도서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없다. 先進外國의 경우는 同一한 版內에서 再刷가 대개의 경우 明確하게 밝혀놓아 區分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도서들이 版과 刷를 區分하지 않을 뿐더러 刷를 版으로 誤用하고 있기 때문에 版과 刷를 正確하게 區分하기 위해서는 그 以前版의 도서를 찾아 內容을 對照해 보아야 만이 明確한 區分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둘째로 版權登錄年度(Copyright Date)를 選擇할 수 있다. 西洋書인 경우 보통 標題紙(Title page)에 出版年度가 나타나며, 標題紙의 裏面に 版權登錄연도가 나타나는데 종종 出版年度가 標題紙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版權登錄年度를 채택하는 方法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개의 版權登錄연도가 나타날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版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版權을 取得하게 됨으로 가장 최근의 版權년도를 그 도서의 版權登錄년도로 간주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서의 경우에는 版權登錄연도가 도서에 나타나 있지 않음으로 版權登錄年도를 選定基準으로 삼을 수 없다.

셋째로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購入한 年度 즉 도서의 受入年度(Acquisition Dat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상 도서관장서로서의 도서의 壽命을 결정하는 年度로는 出版年度나 版權登錄年度보다 훨씬 正確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開架式的 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가 書架에 配列된 年度가, 閉架式的 도서관인 경우에는 도서가 書庫에 入庫되고 열람용 목록「카아드」가 配列된 年度가 「복카아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合理的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貸出의 統制가 「복카아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복카아드」에 반드시 그 도서가 受入, 整理되어 書架에 配列되어진 날자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외에 도서가 實際로 著述된 年度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서의 著述年度는 대개 著者の 序文을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實際로는 著述된 年度가 도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의 수명을 測定하는 手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대개의 단행본의 경우 실제로 著述된 以後 오랜 동안의 出版期間이 所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考慮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도서의 수명을 결정하는데 利用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選擇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앞서서 慎重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서 特定圖書の 最新性이 그 도서에 나타나는 어떤 特定한 年度에 의해 決定되어지는 것이 어느정도 合理的일 수 있는가를 들 수 있다. 도서의 最新性은 두가지 観点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도서의 外形的인 最新性이며, 다른 하나는 도서에 담겨진 내용의 最新性 즉 著述의 最新性이다. 도서의 外形的인 最新性과 著述의 最新性 중 어느 것에 重點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決定要因이 發生할 것이다. 만약 도서의 外形的인 最新性에 重點을 둔다면 위에서 열거한 선택대상중에서 가장 合理的인 것은 圖書의 購入年度가 될 것이며, 同時に 폐기대상도서의 選定이 圖書의 外形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단지 도서의 購入年度가 오래되었다는 理由로 인해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훌륭한 도서가 폐기되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著述의 最新性에 比重을 둔다면 圖書의 著述年度 또는 出版年度가 合理的인 基準이 될 것이다. 圖書의 出版年度가 오래 經過됨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資料의 價値가 減少되고, 도서의 外形이 파손 또는 낡아지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모든 도서가 利用이 減少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古典(Classic)의 경우가 그러한 代表的인 例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폐기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도서의 種類로 들고 있는 것 중에서 破損 또는 汚損된 도서, 內容이 價値가 없어진 도서들이⁽⁴⁴⁾ 도서의 수명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上述한 바와 같이 장서 폐기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도서의 수명이 도서의 將來利用을 어느정도 豫見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받아 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서의 수명이 실제적으로 利用할 價値는 거의 없으며, 특히 古典의 경우 새로운 도서와 거의 비슷한 水準으로 오래된 도서가 이용되어지고 있는데 단지 도서의 수명이 오래되었다고해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서의 수명이 도서의 장래이용에 대한 豫見手段으로서는 適切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⁴⁵⁾

「슬로우트」⁽⁴⁶⁾와 「리스트」⁽⁴⁷⁾의 博士學位論文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圖書의 壽命이 適切한 廢棄手段이 되지 못하며, 圖書의 過去利用記錄을 利用하는 것 보다 費用效果面에서도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도서의 수명에 의해 폐기대상도서를 決定하는 것이 주관적인 判斷에 의한 것 보다는, 누구에 의해서던 지 쉽게 施行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나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서의 폐기기준을 說定하는 變數로서는 適切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過去의 利用記錄에 의한 基準

도서관 장서의 폐기에 관해서 研究되어지고 施行되어져 온 것 중 많은 것들이 記述하기도 어렵고, 一貫性있게 適用하기도 어렵고 또한 規則이나 概念으로 一貫된 것들이었다. 主觀적인 判斷에 의한 폐기대상도서의 選定은 물론 여러 文獻들에 共通적으로 記述되어 있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概念들은 대부

(44) Carter, Mary Duncan. Book, Wallace John and Magrill, Rose Mary. *Building Library Collections*. 4th ed.,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1974. p.169.

(45) Slotte, *Weeding Library Collections-II*. p.65.

(46) Slotte, *The Predictive Value of Adult Fiction in Public Libraries for Identifying Core Collection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1970.

(47) Lister, *op. cit.*

본 具體的인 方法論을 提示하지도 않고 단지 利用要求가 많아서 購入되었으나 時間이 經過하여 더 以上 利用되지 않는 多數의 復本, 改訂版으로 代替된 舊版의 圖書, 破損 또는 汚損된 도서, 잘못 選定된 도서, 內容이 價値가 없어진 도서, 時代에 뒤떨어진 도서⁽⁴⁸⁾ 등이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것들을 適用하기도, 正確하게, 細部的으로 記述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과연 그것들이 妥當한 것인가를 判斷하기가 거의 어려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提示되어진 장서폐기기준 가운데서 圖書의 將來利用을 豫測할 수 있는 變數로서 過去의 利用記錄이 가장 合理的이고 妥當性있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유일한 것이라는 意見으로 一致되고 있으므로^{(49)~(53)} 다음 段階로서 고려해야 할 점은 도서의 과거이용기록을 어떠한 方法으로 測定할 것인가이다. 도서의 過去利用記錄은 여러가지 方法으로 측정되어질 수 있으며 도서관이 어떠한 貸出制度를 채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측정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북카아드」 또는 대출기한표에 의해 측정하는 方法이다. 「북카아드」나 貸出期限表에 나타나 있는 貸出記錄중에서 어떤 記錄을 使用하느냐에 따라 대체로 2가지로 區分되어지고 있다.

첫째로 도서의 最終貸出年度(Last Circulation Date) 또는 最終貸出以後의 期間(Years since Last Circulation)을 利用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을 사용하여 행해진 주요 研究로는 1911년에 최초로 행해진 「랜크」(Samuel Ranck)⁽⁶⁴⁾의 研究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의 「그랜드 라피드스」공공도서관(Grand Rapids Public Library)의 藏書를 대상으로 最終貸出以後의 期間을 調査하여, 當時의 全藏書 64,162권중 10%가 최종대출년도 이후 5년이 지나

(48) Carter, Bonk and Magrill, *op. cit.*, p.169.

(49) Mosher, Paul H. "Managing Library Collections: The Process of Review and Pruning,"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A Treatise*, ed. by Robert D. Stueart and George B. Miller, Jr., Greenwich, Conn., JAI Press, 1981, p.174.

(50) Fussler and Simon, *op. cit.*, p.76.

(51) Lister, *op. cit.*, p.103.

(52) Trueswell, Richard W. "Determining the Optimal Number of Volumes for a Library's Core Collection," *Libri XVI* 1966. p.59.

(53) Kent and Others, *op. cit.*, p.49.

(54) Ranck, Samuel H. "The Problem of the Unused Book," *Library Journal* 36, August 1911. pp.423~429.

도록 貸出되지 않았으며, 20%가 2년동안 貸出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 지금부터 70여년전에 利用되지 않는 도서에 대한 問題點을 解決하는 方法을 提示하였다. 그 이후 1950년에 「그리더」(Elmer M. Grieder)⁽⁵⁵⁾는 미국 「스텐포드」대학교 도서관(Stanford University Library)의 貸出圖書와 書庫에 所藏되어있는 藏書의 「북카아드」로부터 最終貸出年度를 調査하여 1949년 以前の 15年동안 대출된 적이 없었던 現 所藏圖書의 60%만 所藏하던 現行 대출의 93%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結論을 얻어, 全體 藏書의 39%인 76,656 권을 보존서고에 옮겨 놓아도 利用에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하였다. 「트루스웰」(Richard W. Trueswell)⁽⁵⁶⁾은 「북카아드」에서 최종대출년도를 調査하여 分明한 廢棄時點을 마련하여 “지난 8년 동안에 대출된 적이 없는 모든 도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는 規定을 만들었다. 그외에도 「우르웨르트」(J. A. Urquhart and N. C. Urquhart)⁽⁵⁷⁾, 「실버」⁽⁵⁸⁾, 「릿슬러」와 「사이먼」⁽⁵⁹⁾의 연구에서 동일한 方法을 利用하여 적절한 장서폐기를 수행하였다.

이와같이 도서의 최종대출년도와 최종대출이후의 기간을 조사하여 장서를 폐기하는 基準으로 삼는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一定한 計劃下에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북카아드」나 대출기한표에 기록된 대출기록에 의해 조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서의 대출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前提條件이 된다.

둘째로 書架待機期間(Shelf-Time Period)⁽⁶⁰⁾을 이용하는 方法이다. 이 방

(55) Greider, Elmer E. "The Effect of Book Storage on Circulation Servic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XI, October 1950. pp.374~376.

(56) Trueswell, Richard W. "A Quantitative Measure of User Circulation Requirement and Its Possible Effect on Stack Thinning and Multiple Copy Determination," *American Documentation* XVI, January 1965. pp.20~25.

(57) Urquhart, J. A. and Urquhart, N. C. *Relegation and Stock Control in Libraries*. Boston, Oriel Press, 1976.

(58) Silver, *op cit.*

(59) Fussler and Simon, *op. cit.*

(60) Slot, *Weeding Library Collections*, p.168 : 이 用語는 「슬루트」가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이것은 도서관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장래용도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서의 「북카아드」또는 대출기한표를 통하여 豫정되어질 수 있는, 두번의 대출사이 에 도서가 서가에 정지되어있었던 기간 즉 利用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한다. 예를들면 1982년 3월

법은 「슬로우트」가 사용한 방법으로 1968년 新聞社 調査部에 所藏되어있는 主要 자료중의 하나인 人物寫眞銅版의 書架待機期間을 調査하여 所藏된 銅版의 85%를 폐기할 수 있었다는 結論을 내렸다.⁽⁶¹⁾ 이 研究에서는 「書架待機期間」(Shelf-time Period)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지 않고 「貸出間의 期間」(time between uses)이라는 用語를 사용했으며, 그후에 계속되어진 書架待機期間을 測定하여 장서의 폐기기준을 마련하는데 사용되어졌다. 그는 1969년에 「Five Libraries Study」⁽⁶²⁾, 1973년에 「The Harrison Public Library Study」⁽⁶³⁾, 1980년에 「The Larchmont Public Library Study」⁽⁶⁴⁾를 행하여 서가대기기간을 이용한 장서의 폐기기준 설정에 획기적인 成果를 낳았다고 할 수 있겠다.

1969년에 그가 행한 「Five Libraries Study」를 상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뉴악」공공도서관(Newark Public Library)·「트렌튼」공공도서관(Trenton Public Library)·「모리스타운」공공도서관(Morristown Public Library)·「태리타운」공공도서관(Tarrytown Public Library)·「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Briarcliff Public Library)등 5개 公共圖書館 藏書中 成人小說分野 藏書의 폐기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떤 變數가 利用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廢棄基準을 마련하는데 利用되는 變數로 도서의 過去貸出記錄인 書架待機期間과 出版年 中 어느것이 더 나은 것인지 究明하려는 研究였다. 그는 앞에서 언급된 여러 研究論文들의 結果와 마찬가지로 폐기기준을 마련하는데 利用되는 變數中 도서의 過去利用記錄이 가장 客觀的이고 妥當性 있는 사실을 밝힘과 同時에 5개 公共圖書館 藏書中 成人小說分野 도서의 貸出圖擘과 藏書의 書架待機期間을 측정하여 各 圖書館의 特性에 맞게 廢棄基準時點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表 1參照)

20일에 반납되어 1982년 4월 20일에 다시 대출된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은 30일이 되는 것이다. 本 文이 「書架待機期間」은 筆者의 意圖에 의한 것이다.

(61) Slote, "An Approach to Weeding Criteria for Newspaper Libraries," pp.168~172.

(62) —, *Weeding Library Collections*, pp. 76~83.

(63) *Ibid.*, pp. 84~93.

(64) Slote, *Weeding Library Collections-II*. 2nd revised ed., p.121.

表 1. 대출도서와 장서의 누가서가대기기간(Slote의 Five Libraries Study)

서가대기기간 (개월)	브라이어클리프		태 리 타 운		모 리 스타운		트 텐 톤		뉴 악 크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대출도서	장 서
0	72	22	69	24	87	41	55	12	49	14
1	79	30	77	34	93	52	65	16	62	19
2	85	37	83	42	97	56	70	20	70	22
3	86	41	85	47	—	60	76	22	75	26
4	90	47	88	51	98	63	79	24	78	29
5	94	52	89	55	—	65	80	27	81	32
6	96	56	91	58	—	68	82	29	83	34
7	97	64	93	61	—	71	85	31	84	36
8	—	68	—	62	99	72	86	33	—	39
9	98	70	—	65	—	74	—	35	87	41
10	—	72	94	67	—	75	88	37	88	42
20	99	84	97	82	100	84	93	53	95	60
30	100	92	98	89	—	90	—	61	97	70
40	—	96	—	94	—	93	97	67	99	74
50	—	99	99	96	—	96	—	72	—	78
60	—	—	—	97	—	—	98	74	—	83
100	—	100	100	99	—	97	99	80	100	92
200	—	—	—	—	—	—	—	92	—	98
300	—	—	—	100	—	100	100	97	—	—
400	—	—	—	—	—	—	—	99	—	100
600	—	—	—	—	—	—	—	100	—	—

表 1에 대해 살펴보면 「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의 貸出圖書欄의 첫행을 보면 調査期間동안 대출된 도서의 72%가 지난 30일 以內에 대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0個月欄에 72%의 도서가 貸出된 것으로 表示되고 있다. 둘째행은 追加의 7%(79%~72%=7%)의 도서가 지난 30~60일 이내에 대출된 적이 있어 조사기간동안 대출된 도서의 79%가 지난 60일 이내에 대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藏書欄은 「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의 成人小說分野 全體 藏書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書架待機期間을 調査한 結果에 의해 전체 소설분야 藏書중 22%가 지난 30일 以內에 대출되었

고, 30%가 지난 60일 以內에 대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브라이어클리프」공공도서관 所藏의 成人小說分野의 全藏書의 22%가 現行 貸出要求의 72%를 滿足시켜 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成人小說分野 全體 藏書의 22%만 所藏하면 現行 貸出要求의 72%는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現행대출의 99%를 만족시키는 도서로 구성된 장서를 基本藏書(Core Collection)라 한다면 現藏書의 84%가 基本藏書이므로 나머지 16%는 폐기시켜도 된다는 結論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20個月 以內의 書架待機期間을 갖는 도서만 所藏하고, 20個月 以上의 書架待機期間을 갖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과거의 이용기록을 통한 장서의 폐기가 가장 合理的이고 효율적이고 유일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方法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두 適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過去의 利用記錄이 완벽하게 記錄·維持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도서관들이 館外貸出을 許用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一部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이용에 대한 기록이 충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관의대출을 許用하는 그밖의 도서관의 경우도 初創期의 貸出制度의 未備로 완벽하게 과거 이용기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方法은 過去利用에 대한 記錄이 必須的인 前提條件이 되기 때문에 과거이용기록의 미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사전에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過去의 利用記錄이 계속해서 記錄·維持되어 오는 경우에도 資料의 有用性을 저하시키게 되는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年度가 記錄되어있지 않은 경우.

나. 「북카드」 또는 대출기한표가 모두 사용되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을 경우.

다. 再製本할 때 기존의 기록이 없어진 경우.

라. 도서가 書架에 배열된 以後 한번도 利用되지 않은 경우. (단 書架에 배열된 날짜가 記錄되어 있다면 제외)

다. 利用記錄이 분실·훼손된 경우.

이외에도 도서관내에서 利用되는 일반도서는 물론 館外貸出이 許用되지 않는 參考圖書, 指定圖書, 貴重圖書등의 館內利用을 어떻게 記錄·維持할 것인가의 問題點과 一般 利用者들에게 利用이 許用되지 않는 特殊圖書들에 대한 問題, 貸出期間의 變動 및 반납예정일 보다 빠르게 또는 늦게 반납된 경우 正確한 貸出期間測定의 어려움, 잘못 배열되어진 圖書와 目錄[카아드]로 인해 利用되지 않은 도서의 문제, 同一版의 復本인 경우 한권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과거이용기록에 의한 장서폐기의 妥當性을 저하시킬 수 있는 要因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북카아드」 또는 대출기한표에 記錄되어진 過去利用記錄을 통해 폐기대상도서를 選定하는 方法이 가장 쉽고, 빠르고 아마도 가장 신뢰할 만한 合理的인 方法이라는 것은 밝혀진 바와 같다. 이 方法은 專門家가 아닌 날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施行에 參與할 수 있으며 일단 書架待機期間이 豫定되어지면 쉽게 各 도서관의 特性·目的·書庫空間·豫算·人力 등—에 맞게 폐기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IV. 書架待機期間에 의한 藏書廢棄方法

서가대기기간의 豫定에 의한 장서폐기방법에는 대출되어지는 도서와 書架에 꽂혀있는 藏書의 書架待機期間이 多다 豫定되어야 한다. 貸出圖書의 서가대기기간 豫定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출되는 도서의 「북카아드」 또는 대출기한표를 貸出合에서 그때 그때 調査하는 方法이고, 다른 하나는 利用者가 提出한 貸出申請書를 일정기간 수집·보관하였다가 일시에 대출신청서를 통해 대출된 도서를 추적하여 그 도서의 利用記錄을 調査하는 方法이다. 위의 두가지 方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前者가 이 業務를 매일 매일의 업무에 포함시켜 正確하게, 一貫性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後者보다 더 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북카아드」 또는 대출기한표에는 각 도서관의 貸出制度에 따라 대출일, 반납일, 반납예정일 등이 기록되어진다. 반납일이 기록되는 경우 도서의 書架待機期間은 기록되어있는 반납일중 가장 최근에 반납된 날부터 다음 대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1982년 4월 10일에 대출되는 도서의 「북카아드」에

1980. 7. 20.

1981. 10. 12.

1981. 12. 7.

1982. 1. 4.

로 반납일자가 記錄되어 있다면 1982년 1월 5일부터 1982년 4월 9일까지 대출이 되지않고 待機狀態로 書架에 꽂혀 있는 기간이 95일간이 書架待機期間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이 대출기한표에 도서의 返納豫定日을 記錄하고 있어 貸出된 날자는 알 수 있지만 返納된 正確한 날자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正確한 書架待機期間의 測定이 어려우나 이와같은 問題點은 返納窓口中에서 返納되는 適正數의 도서를 調査하여 實際의 平均 貸出期間을 測定하여 返納豫定

表 2. 서가대기기간 측정표

서 가 대 기 기 간		책 수	계
일	월		
1-30	0	正 正 正 正 正	23
31-60	1	正 正 一	11
61-90	2	正 丁	7
91-120	3	正 一	6
121-150	4	正	4
151-180	5	正	5
181-210	6		
211-240	7		
241-270	8	丁	2
271-300	9	一	1

日에서 加減하여 측정할 수도 있으며, 반납예정일을 반납일로 간주하여 서가 대기기간을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가대기기간이 측정된 도서는 表 2와 같은 양식의 서가대기기간 측정표의 해당 기간란에 표시하여 表 3과 같은累加書架待機期間表를 作成하면 되는 것이다.

表 3. 누가서가대기기간표

서가대기기간 (월)	책 수	계	
		책 수	비 율(%)
0	23	23	39.0
1	11	34	57.6
2	7	41	69.5
3	6	47	79.7
4	4	51	86.4
5	5	56	94.9
6	—	—	—
7	—	—	—
8	2	58	98.3
9	1	59	100.0

藏書의 書架待機期間 測定은 소규모의 장서를 所藏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던 調査對象 主題分野의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藏書量이 많은 도서관에서는 調査對象 主題分野의 全體 藏書를 대상으로 하여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하는 것과 거의 類似한 結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標本을 推出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와같이 취해진 標本圖書는 調査가 행해진 날자에 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밝혀진 대출도서와 장서의 누가서가대기기간의 비율누계를 통해 적절한 폐기기준을 유도해 내게된다. 대출도서와 장서의 書架待機期間에 의해 現藏書에 대한 將來 利用度를 豫見하여 一定 水準의 將來 利用을 滿足시켜주는 基本藏書는 계속 도서관에 所藏하고 基本藏書에 포함되지 않는 非基本藏書는 廢棄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본장서와 비기본장서를 구

분해 주는 도서의 서가대기기간을 廢棄基準으로 삼아 一定 期間동안 貸出이 되지않고 書架에 待機하고 있는 도서는 폐기시킬 수 있게된다.

基本藏書와 非基本藏書의 區分은 現藏書에 대한 貸出滿足度에 의해서 決定되는 것이다. 現藏書에 대한 貸出을 몇 「퍼센트」 充足시켜주는 도서를 基本藏書로 간주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장서와 비기본장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基本藏書의 결정은 館種에 따라, 資料의 種類에 따라, 또는 主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슬로우트」에 의하면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85~90%, 公共圖書館의 研究資料는 95~99%, 初級大學校 圖書館資料는 90~95%, 大學圖書館의 資料는 95~99% 程度로 滿足시켜주는 圖書群을 基本藏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⁶⁵⁾ 그러나 이와같은 數値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각 도서관의 目的, 書庫空間의 問題, 豫算, 人力등에 따라 適切히 決定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V. 結 論

圖書館은 人類의 文化遺産을 後孫들에게 傳達하는 媒介體로서, 또한 社會機關으로서의 役割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오늘날의 急變하는 社會속에서의 도서관은 發生 初期의 “資料의 保存”이라는 基本的인 目的과 役割이 “資料의 效率인 利用”이라는 것으로 變化하고 있으며, 또한 그 變化를 깊이 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基本的인 目的과 役割의 수행을 沮害하는 여러 가지 問題들에 직면하고 있다. 도서관이 直面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慎重히 對處해야 할 점은 出版量의 急增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出版量의 急增으로 인해 도서관은 書庫空間의 不足現象에 直面하게 되고, 利用되지 않는 자료가 累積됨으로 인해 자료의 效率인 利用이 어렵게 되고, 또한 장서의 질적저하가 招來되어 마침내는 도서관의 奉仕活動

(65) *Ibid.*, pp. 54~60.

을 弱化시키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不信感을 誘發시켜 도서관을 沈滯케 하는 要因으로까지 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같은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方案으로 提示된 것이 將來에 利用이 되지않을 도서를 適切히 廢棄하는 것이다. 將來에 利用되지 않을 도서를 選定하는 方法으로 主題專門家의 判斷을 통해서, 또는 도서의 出版年度, 도서의 過去利用記錄등을 利用하는 方法이 있으나, 도서의 過去利用記錄이 어느 다른 方法보다 가장 客觀的이고 妥當性있는 選定方法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藏書數에만 執着하고 있을 時代는 지난 것 같다. 消極的이고, 受動的인 奉仕姿勢에서 벗어나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姿勢로 利用者에 대한 奉仕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도서관의 藏書量을 確保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藏書의 廢棄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도서관에도 닥쳐오고 있는 藏書의 廢棄問題에 대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認識을 새롭게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빨리 對處하여 準備하는 것이 問題의 解決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장서체계의 方法으로 提示된 도서의 過去利用記錄에 대한 整備는 물론 圖書館의 業務體制도 조금씩 變化되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n Weeding Criteria of Library Collections

Lee, Eun Chul

<Abstract>

Today, one of the major pressures that libraries have been facing is the rapid growth of publications. Due to the rapid growth of publications, libraries have been faced the shortage of stack as well as quality deterioration of library collections. Naturally, these disappointed the users and made the present library activities weak and inadequate.

One of the desirable actions in remedying these problems is to weed library collections properly and regularly. Weeding methods used in libraries are derived from the judgement by subject specialists, from the examining the imprint date and the past use patterns of a volume. Among these methods, the past use patterns are highly predictive of the future use, and can be used to creat meaningful weeding criteria.

Since the libraries in Korea have emphasized on numbers of library collection in the past, the libraries have neglected weeding library collections. Now, we must turn our concern toward the weeding library collections, and the attitude of the library services to the users must change from passive to active.